

외국어와 외국 문화에 정통한 국제 전문 인력 양성

서 의 택 | 부산외대 총장

부산외대의 선택(비전)

부산외국어대학교는 우리나라 국력이 급속히 성장하던 1982년에 '외국어와 외국 문화에 정통한 인재'를 양성하여 한국의 세계화를 주도할 인력 양성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설립한 특수 목적 대학이다. 건학 이념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현재 입학 정원 2,250명의 중간 규모 대학이며, 외국어 교육 중심의 역사가 그리 길지 않은 대학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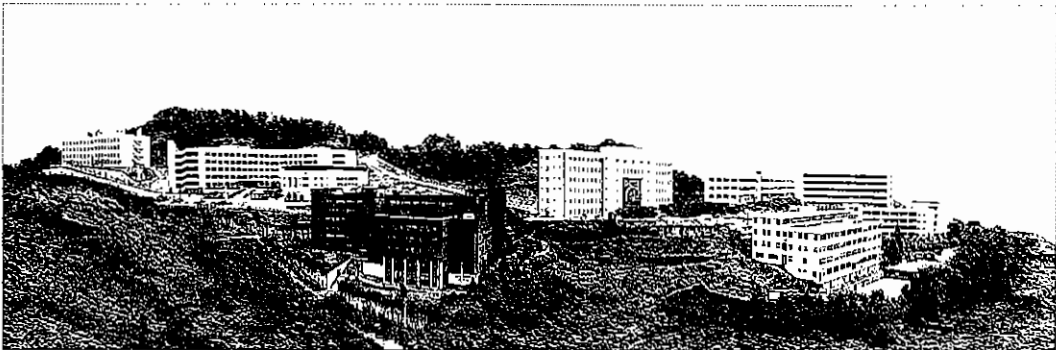
부산외대의 강점은 외국어 교육과 국제 지역학 연구 분야에 최고 수준의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강점과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부산외대는 '최고 수준의 외국어 교육과 지역 연구 중심 대학'으로 발전하여 21세기 환태평양 시대를 선도할 실무형 국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부산·경남 세계화의

중핵 대학으로 발돋움한다.'는 발전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비전 설정의 전략적 의도는 외국어 교육과 지역 연구 분야의 핵심 역량을 기반으로 '우리 나라 기업의 세계 진출 지원 기지'로 발돋움하는 것이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의 첩경이며, 큰 규모의 대학 및 외국 대학에 뒤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제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한 지역 사회 발전에의 공헌은 부산외대에 주어진 시대적 소명이기도 하다.

외국어 교육의 메카

학교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부산외대는 외국어 교육 중심의 종합 대학교이다. 그러나 우리가 양성하고자 하는 학생은 단순히 외국어만 구사할 줄 아는 인력



이 아니라, 외국 문화와 국제 사정에 정통하고 현지인과 동일하게 생각하고 호흡하면서 세계를 무대로 활동할 수 있는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인력이다. 과거에 국제 교류가 적을 때는 외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줄만 알아도 유능한 사람으로 인정받기도 하였으나, 이제는 언어 구사 능력 이외에 그 나라의 경제, 사회, 문화, 정치, 심지어는 풍습에 이르기까지 그 나라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졸업생 개개인이 국제 교류 활동의 중심에 서기 위해서는 통상에 관한 지식을 겸비하고, 정보 수집 및 처리 능력도 갖추어야 한다. 이와 같이 다학문적·다문화적 지식을 겸비하고,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며 세계를 품는 진정한 한국인! 바로 부산외대가 배출하고자 하는 졸업생의 모습이다. 이러한 인재는 21세기 우리 나라가 필요로 하는 인재의 모습일 것이다.

지난 '98년과 '99년에 IMF라는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도 예년에 못지 않은 80% 이상의 높은 졸업생 취업률을 유지한 것은 외국어를 기반으로 한 우리 대학의 교육 모델이 개방화·세계화 시대의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실무형 국제 전문 인력 양성

부산외대의 교육은 졸업 후 곧바로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실무형 국제 전문 인력 양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국가간의 교류가 증대할수록 국제 전문 인력의 필요성이 증가할 것이며, 이론적 지식에 앞서 실무적 현장 지향형 노하우가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대학은 모든 학생에게 영어는 기본이고 능력에 따라 개설되어 있는 16개 외국어 중 적어도 한 가지 이상 습득하도록 하고 있다. 단순한 외국어 구사 수준이 아니라 그 나라 사람처럼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도록 현지화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재학 중 해외 연수, 자매 결연 대학·연구소·기업을 통한 해외 인턴십 제도를 확대하고, 세계 각국에 관한 생생한 자료 수집, 18개국 43개 채널의 외국 TV 방송 수신 시스템을 비롯한 최고 수준의 외국어 교육 시스템, 46명의 외국인 교수를 확보하고 있다.

외국어 능력을 토대로 하여 정보 처리 능력, 국가간의 통상 및 교류·협력에 관한 기본 지식을 습득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어 + 그 나라에 관한 지식 + 국제 통상 지식 + 정보처리 능력'을 갖추어 졸업 후 국제 무대에 스스로 적응하고 새로운 지식과 기회 창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소양을 배양함으로써 우리 대학의 슬로건인 '세계화된 열린 사고와 현지화된 행동(think globally and act locally)'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대학 교육의 새로운 모델 : GLE

창조적 지식의 창출과 활용이 중시되는 지식 기반 사회에서는 산업 사회와 판이하게 다른 산업 구조와 인력 양성이 요구된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대학은 교육에 대한 사회적 수요에 토대를 둔 새로운 교육 모델 개발과 교육 부문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 한 예가 GLE(Globalized & Localized Experts) 양성 과정이다.

GLE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다양하고 이질적인 문화에 민감하게 적응하고 또한 포용할 수 있는 개방성과 외국에 관한 지식, 정보 처리 능력, 국제 통상 지식을 체계적으로 습득하도록 교육하는 동시에 국제 감각과 현지화된 사고 능력을 배양하여 진정한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도록 현장 밀착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학생의 자질을 존중하여 완전한 학부제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독특한 교육 프로그램은 유관 기관들로부터 바람직한 대학 교육 모델로

서 인정받고 있으며, 교육부로부터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국제 전문 인력 양성 특성화 대학'으로 선정되어 재정 지원을 받고 있다. '98년과 '99년에는 국제 전문 인력 양성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올해 첫 졸업하는 GLE 학생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것으로 미루어 특성화 사업이 성공한 것으로 판단됨으로써 GLE 프로그램을 모델로 하는 교육 과정 재편성을 조속히 완료할 예정이다. 그 외에 정보 통신부로부터 우수성을 인정받아 금년부터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정보 통신 전문 인력(ITE) 양성 프로그램 등 자체 개발한 특성화 프로그램들의 시행이 완료되면 기존의 모든 전공 분야(외국어, 인문 과학, 정보 통신, 상경학)가 통합·연계되어 특화되고 경쟁력 있는 졸업생을 배출할 수 있는 체제가 완성될 것이며, 제 2의 힘찬 도약을 이룩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새로운 차원의 산학 협동

대학은 지역 사회에 우수한 인력을 제공하고, 지역 사회는 대학에 고용을 제공하는 것이 지역 사회와 대학의 가장 바람직한 관계라 생각한다. 지금까지의 산학 협동은 이공계 기술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개발된 기술의 상품화를 위한 산학 협동이 기술 개발 못지 않게 중요하다. 자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외국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부산·경남 지역 기업의 85%가 외국에서 온 영문(또는 기타 언어) 팩스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가장 필요로 하는 산학 협동이 마케팅을 비롯한 경영 부문이었다.

우리 대학은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해 주기 위하여 80여 개 기업 및 업종 교류 협회와 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외국어 통·번역, 경영 자문, 국제 법률 자문, 홈 페이지 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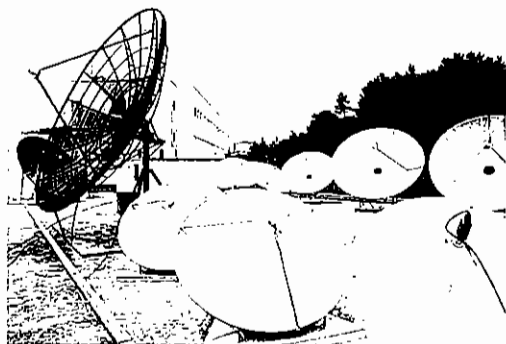
작·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차원의 산학 협동은 우리 대학이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임과 동시에 기업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산학 협력 모델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부산 국제 영화제(PIFF) 통·번역·연구 지원, 부산 시민의 세계화 마인드 형성을 위한 세계 민속 축전 개최, 일반인을 위한 다양한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 택시 운전 기사를 위한 생활 영어 교육, 해외 파견 공무원 어학 능력 검증 등을 통하여 지역 사회의 국제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2002년 아시안 게임 통역·번역 및 안내 요원 교육 공식 기관으로 지정되어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다.

교육의 네트워크화

이제 대학 교육은 대학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사회적 요구의 부응에 한계가 있다. 특히 실무형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체 등의 외부 기관과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할 수 있도록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야 하며, 이에 적합한 교육 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한다.

우리 대학은 현재 14개국 330개 대학, 2개국 2개 연구소, 61개의 기업체 및 NGO와 교류 협력 협정을 맺고 학생들의 어학 연수, 인턴십, 현지화 교육 등 현장 밀착 교육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다. 2002



년까지 협력 협정을 2배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공동 학위 수여제 도입, Joint-Venture 형태의 교육 기구를 설립하여 교육 시장 개방에 대처하고자 한다. 내부적으로는 교육 시스템을 운영하는 주체(integrator)를 다양화하여 학과 및 단과 대학뿐만 아니라 2~3개 학과(또는 전공) 공동체, 부설 연구소, 부속 기관도 교육 과정 운영에 참여시킬 예정이다.

부산외대의 미래 좌표

이제 부산외국어대학교는 21세기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국제화된 고급 인재를 양성·공급하는 지역 사회의 중추 기관으로서 그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으며, 부산·경남 지역 세계화의 거점 대학으로 자리 매김하고, 주어진 시대적 소명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 국가간의 교류가 활발해질수록 우리 대학교가 교육 목표로 삼고 있는 국제 전문 인력에 대한 사회적인 수요가 점차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대학의 미래는 매우 밝다.

현재 실험 운영 중인 '과정 중심의 동적 교육 시스템(process oriented educational system)'이 정착 되면 교육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이다. 이 시스템은 최종 목표를 사회의 교육 수요자(고객)에 맞춘 외부 지향적 시스템이며, 다양성과 자율성을 전제로 한 개방 시스템이다. 학생들이 입시에서 졸업에 이르는 전 과정에 외부 수요자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는 교육 과정과 교과 과정을 설계하고, 학과를 초월하여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도록 복수 트랙시스템(multi-



tracking system)과 융합 교과 과정으로 설계되어 있다. 교육 내용도 국제 감각 배양 교육, 정보 지향적 교육, 기초 기능 중심의 교육, 현장 실무 중심의 교육, 지역 연구를 강조하고, 품질 관리 경영 기법을 교육 과정 운영에 도입하여 교육의 질적 수월성을 높이고 있다.

부산외대는 아시아 지역 최고의 국제 전문 인력 양성 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해 지금까지 시행하여 온 사회의 인력 수요와 졸업생들에게 필요한 자질을 매년 조사하여 교육 프로그램에 반영하고, 필요한 첨단 교육 시설을 확충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학생 개인의 자질을 최대한 개발할 수 있도록 학생 중심주의 교육을 더욱 구체화하고, 외국인 학생과 외국인 교수를 확충하여 다문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새로운 대학 교육 패러다임을 끊임없이 추구할 것이다. 핵심 역량에 토대를 둔 지속적인 교육 개혁만이 대학의 자생력을 높이고, 국가와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이다. **박정호**